



법무보호 전북지부 운영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송병용)는 지난 2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운영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육진호 전임 위원장과 송병용 신임 위원장 및 운영위원, 최철순(전북현대모터스 소속) 홍보대사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지난 재임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전북지부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과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육진호 위원장에게 공단 이사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새롭게 취임한 송병용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중대한 책임을 지닌 자리인 만큼 보호사업을 통한 범죄 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이순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은 “먼저, 육진호 명예위원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송병용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지부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금동,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2일, 관내 워크업(대표 이정준)을 착한 가게 27번째 업체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워크업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업복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게로, 노동자를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존중 받아야 하는 소비자로 바라보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워크업 이정준 대표는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매장으로 성장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더욱 뜻깊다”라고 전했다.

김봉래 동장은 워크업에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금동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만경읍 지사협,건강 취약가구에 영양식 지원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인식)가 3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식(뉴케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61세대를 직접 방문해 영양식을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영양식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따뜻한 마음 덕분에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복지기동대,겨울나기 터큰 설치 추진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미향)는 지난 2일, 관내 난방 취약 계층 11세대를 선정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실내 냉기 유입을 막기 위한 ‘방풍 커튼 설치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기동대원 10여명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구별 난방 상황을 점검하고, 냉기 유입이 심한 창문과 출입문에 방풍·단열 효과가 높은 커튼을 설치하며, 문 틈새 바람 차단 작업, 실내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난방비 상승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커튼 등을 설치하는 활동을 확대 실시했다.

한편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실시한 복지 상담과 방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행정이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사

새만금개방청

◇과장급 ▲개발전략국 기업지원 단장 최은국

국립군산대 제10대 총장 선출

1순위 임용후보자에 '김강주 교수'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3일 차기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김강주(60·환경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강주 교수는 3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결선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92.39표 중 56.21표(60.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강주 교수와 경쟁한 나인호(60·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는 36.18표(39.16%)를 얻어 2순위 후보자가 됐다.

1~2순위 후보자는 대학 연구윤리 검증을 거쳐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청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립군산대 제10대 총장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8일부터 4년간이다.



김강주 교수는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일하는 총장을 강조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학, 양질의 교육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학,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 모든 구성원이 함께 웃는 따뜻한 캠퍼스를 제시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피부 접촉 의료기기 교차감염 가능성 규명

전북대 박윤환 석사과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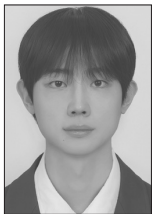
학술대회서 '우수 구연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환 석사과정생(지도교수 박진, 피부과)이 '제8차 대한피부진균및감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윤환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피부 접촉 의료기기의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교차감염 가능성 탐색 및 제어 연구'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병원 내 감염(HAI)의 잠재적 매개체로 간과돼 온 피부 접촉형 의료기기의 세균 생태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배양 연구를 병행해 정밀하게 규명한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기기들이 단순한 피부 상재균 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의 저장소이자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기기별로 접촉하는 피부 부위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세균 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기기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등 잠재적 병원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7종의 피부 접촉 의료기기에 대한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비침습적 장비의 교차감염 관리 및 소독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박진 교수 연구팀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교차감염 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북대 공과대학 문세연 교수팀 및 (주)플라즈메이즈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윤환 연구원은 “비침습적 의료기기 또한 교차감염의 잠재적 저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감염 제어 솔루션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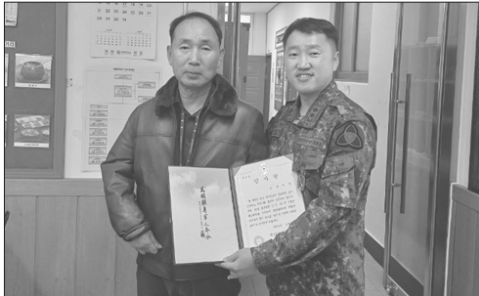
/장은성기자

“지역 안전, 우리가 지킨다”... 정읍시, 35사단서 감사패

정읍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부대와 끈끈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제35보병사단으로부터 그간의 민·관·군 공조와 견고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 전달은 양 기관이 평소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방위 태세를 굳건히 다져온 과정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시와 35사단은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 지역 안보의 동반자로서 신뢰를 쌓아왔다.

실제로 두 기관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물론, 안보 관련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역할을 조율해 왔다. 특히 최근 실시된 호국훈련 기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선보이며 실천과 같은 대응 태세를 입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은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의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감사 전달을 계기로 양 기관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5사단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이끌 ‘자이언트 플라워’ 전문가 10명 배출

삭막한 도심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색 전문가들이 정읍에서 탄생했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최근 ‘자이언트 플라워(대형 꽃) 디자인 감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며,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을 접목할 실무형 인재 육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읍시지역활력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교육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축하했다. 행사는 정읍시지역활력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수료증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 직후 마지막 교육까지 이어지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수료생 10명은 교육기간 동안 대형 종이꽃을 만드는 기초 기법부터 이를 활용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심화 실습까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지역 내 다양한



행사나 축제 현장, 도시재생 공간 등에서 공간 디자이너 및 전문 감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지난 2일, 농신보 남원권 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방치된 폐영농자재 및 산발발생의 원인이되는 폐비닐 수거를 통한 농촌환경정화와 산불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오영석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농가주부모임 총회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농가주부모임회원은 최근, 구천동농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주부모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하며,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가주부모임은 지역 생산물 소비 촉진활동, 이미용 봉사, 영농철 일손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농협과 지역사회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성곤 조합장은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해 활력과 행복지가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구천동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통해 따뜻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 선정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전 직원 투표를 실시하고 최우수·우수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관내 초·중·고생들이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화재 예방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출품했으며, 최우수상은 월라초 3학년 정예원, 우수상은 월라초 4학년 방수현 학생, 월라초 2학년 엄예라 학생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김승현 서장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에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화재 예방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래 상담 연합회' 활동 평가회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일, 연합회 학생과 상담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소감을 공유하는 ‘도래 상담 연합회’ 활동 평가회를 진행했다.

도래 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청소년 도래 상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활동으로, 올해는 노암초, 용북중, 인월중, 제일고, 남원여고, 경마축산고 등 총 6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도래상담 연합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강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는 최근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 나눔학습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TOPIK반’을 종강했다.

‘TOPIK반’은 지난 9월부터 총 12회기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기초 어휘 학습은 물론, 실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비할 수 있는 읽기·쓰기·듣기 중심의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